

OpenDoors

06

2022

VOL.242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15)

박해와 선교현장

니제르(Niger)

현장인터뷰

GSRP란 무엇인가?

심화현장

GSRP보고,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박해 유형들"

현장스토리

북아프리카,

사라(Sarah)의 박해 스토리



카톡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우크라이나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김성태 교수 (한국오픈도어 대표이사)

육, 칠 년 전에 러시아 목사 요나와 몇 사역자의 안내를 받아서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주변 도시 몇 군데를 방문하였다. 벨라루스는 정치적으로 러시아와 결속되어 있기에 방문이 수월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전혀 상황이 달랐다. 벨라루스에서 현지 목사님들과 잊지 못할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정부 당국의 보이지 않는 감시와 각종 규제 등으로 교회의 목회 활동에는 상당한 제약과 긴장이 있었다. 벨라루스 목사들의 안내로 스탈린 정권 때 지하교회로 활용하였던 시골 교외의 한 허름한 농가에서 모임을 했다.

러시아 목사와 벨라루스 목사들이 서로 결속하여 슬라브 지역 전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고, 전 세계의 고난 받는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서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였다. 잊을 수 없는 모임이었다.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에서는 그곳 개신교회의 대표들과 모임을 했고, 이분들이 역사적인 아픔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과 러시아 정부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러시아의 주류 종족인 백인계 러시아 슬라브 종족은 우크라이나의 슬라브 종족과 같은 종족으로서 서로 간에 친인척 등으로 자연적인 연계성이 있었다.

러시아 지역을 여행할 때 많은 러시아 교인들의 친인척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었고,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다. 현지 러시아 사역자인 다니엘은 우크라이나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우크라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은 많은 경우 매부리코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 여성의 코가 일반적으로 높다는 뜻이었다. 러시아의 대다수 개신교 지도자들은 러시아 정부의 범 슬라브 정책으로 러시아 정교회와 긴밀하고 가깝게 밀착하는 것과 러시아의 개신교회를 새로운 규제로서 통제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 결국, 이런 러시아 정부의 정책과 지도자의 왜곡된 민족주의적 야심은 전쟁이라는 가장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개신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전쟁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으며, 전쟁으로 죽어가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와 파괴된 국가재건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필사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개신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시련 속에서도 역동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전 슬라브 종족 복음화뿐 아니라 구소련 치하의 중앙아시아와 전 세계를 향해 서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적 교회로서 성장하였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교회를 이번 전쟁이라는 불같은 시련 속에서 더욱 정밀하게 단련하시며, 순금처럼 준비시키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 러시아 목사 요나와 다니엘이 전달해 준 우크라이나 현지 사역자들의 소식은 고무적이다. 폭격과 파괴가 덜 심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서로 결속하여 참혹한 전쟁의 파괴 속에 고통받는 시민들과 교인들을 구제하며, 구출하며 치료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교회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전쟁 종식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교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적과 종족과 문화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천국 백성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연약한 지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묶여 있다.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언젠가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날에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교인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한 선교적 소명으로 하나님의 교회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사탄의 꾀계는 모든 불의와 불법과 함께 실패하게 되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한다.

CONTENTS

04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수기

-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15)"

08 박해와 선교현장 - 니제르(Niger)

16 현장인터뷰 - GSRP란 무엇인가?

18 심화현장

- GSRP보고,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박해 유형들"

20 현장스토리

- 북아프리카, 사라(Sarah)의 박해 스토리

23 희망의 선물

24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2022년 05월호 | 통권 242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사

사무총장 _김경복 선교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김지옥, 김보미, 오현정, 문민환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김셋별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집안일만 하고 있으니 하루하루 쳇바퀴 돌 듯 살았다. 고부갈 등은 완화된 기미가 안 보였고 아이들은 나를 아직은 어색해 했다. 생활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아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바깥일을 찾아 나섰다. 당시 내가 살던 곳 근처에 금을 캐는 광산이 있었는데, 밤에 몰래 광산에서 돌을 한 무더기를 사서 작업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그 동네에서는 꽤 통용되던 부업이었다. 이 일을 해보기로 남편과 상의를 하고는 어느 날 밤 시누이와 함께 밤에 작업을 하러 나갔다. 참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밤 9시쯤에 집을 떠나 세 시간을 걸어 산에 도착했고, 그 곳에서부터 자전거를 빌려서 한 시간 정도를 더 타고 이동했다. 더 이상 자전거를 끌고 가기 힘든 산 아래 동네에 도착하여 3천원을 주고 자전거를 맡기고 그 곳에서부터 또 다시 도보로 한 시간은 걸어서 광산 입구에 도착했다. 우리와 비슷하게 일감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몇몇 줄 서 있었다. 무거운 돌 짐을 한 무더기 받아 어깨에 메었는데 30키로 정도였다. 쌀자루 30키로를 지는 것과 돌무더기 30키로를 지는 것은 또 달랐다.



캄캄한 한밤중에 무거운 돌을 지고 걸어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야맹증을 앓고 있는 나는 거의 장님에 가까웠다. 순찰대가 수두룩하게 깔려 있는 지역이다 보니 손전등이 있어도 켜지를 못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움푹 파져 있는 웅덩이나 얼음 빙판이 있을 적에는 영락없이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했다. 다들 이미 저 멀리 가 있는데 나는 몸 상태도 좋지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 스무 걸음 걷고, 스무 걸음만큼 쉬면서 시간이 하염없이 걸렸다. 무거운 돌을 지고 자전거를 세워놓은 곳까지 거의 기어가다 싹چه 이동한 후 맡겨놓은 자전거를 찾아 뒷좌석에 돌 무더기를 올려놓았다. 돌짐이 어찌나 무거운지 자전거 앞 축이 들려서 타지도 못하게 되어 찢찢매다가 하는 수 없이 그대로 그 무거운 돌자전거를 집까지 끌고 갔다. 다들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자전거를 썩썩 잘 타고 집에 가버린 사이 나와 시누이만 덩그러니 여둑 속에서 끙끙댔다. 내 한 몸 부지하기도 힘든 추운 겨울날이었지만 무거운 자전거를 이끌고 강산의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니 온 몸이 땀에 젖었고 숨은 턱에 닿았다. 남들이 다 자는 밤, 생존을 위해 이렇게 젖 먹던 힘까지 용을 쓰며 길바닥에서 몸부림을 치는 내 신세가 하도 처량하여 서러움을 넘어 분노가 차올랐다. 불현듯 이게 바로 북한 주민들의 실태인 것 같다는 깨달음에 몸서리가 쳐졌다. 세상이 잠든 한 밤중에 출발한 이 여정은 동틀 무렵에 끝이 났다.

눈을 잠깐 붙이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 삭신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얼얼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새벽까지 힘들게 이고 진 돌무더기를 꺼내 아침 햇바람부터 온 가족이 달려들어 작업을 시작했다. 30키로의 큰 돌덩이를 잘게 쪼개 후 기

계에 넣으면 기계 속의 시약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돌 가루 안의 금가루를 추출하는 방식이었다. 어젯밤부터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얻은 금가루는 참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이 일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실망하며 다짐했으나 딱히 다른 일을 구할 수가 없어 매번 안보이는 눈으로 밤에 돌덩이를 얻어 오곤 했다.



당시 시집식구들이 다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시동생 집은 우리보다 생활이 더 어려웠다. 우리는 키울 가족이라도 있었으나 그 집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야밤에 돌덩이 가져오는 것으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 바빴다. 그쪽 식구를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지만 정작 그 집 사람들은 그런 생활에 어떻게든 적응해가며 힘들어하지 않고 행복해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내가 아는 세상이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겠지만, 괜히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와 행복을 맛보고 왔기에 지금 생활이 더 힘든 것 같다고 느껴졌다.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점점 스스로가 불쌍하기 그지없었다. 정말 생활하기가 어려웠다.

이 곳에서의 삶은 마치 철창 속에 공공 묶여 갇혀 있는 것만 같았다. 남편이 손재주가 좋고 기술이 많아 그 동네에서 여러가지로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가택수색을 하면 꼭 우리집 먼저 검열이 들어왔다. 하루는 어느 날처럼 열심히 얻어온 돌덩이를 잘게 쪼개며 기계를 돌리고 있을 무렵 담당 형사가 들이닥쳤다. 집안에 있는 기계를 보더니 다짜고짜 불법이라며 기계를 회수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금가루를 추출하는 이 기계는 어느새 우리 집의 중요한 생계 유지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억지를 부리는 담당형사 앞에서 내가 "당신이 저것을 빼앗는 그 순간 나는 이 시약을 마시고 죽을 것이다"라며 이판사판으로 큰소리쳤다. "우리집은 저 기계로 생존하고 애들 밥 먹이고 공부시킨다. 내가 이 땅에서 차라리 조그만 불법을 해서

라도 여기서 살아남는 게 다시 돈 벌겠다고 중국 가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랬더니 담당 형사는 그냥 돌아가버렸다. 우리 남편은 그 담당 형사 앞에서 한 마디 저항도 못했다. 보통 북한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 나라도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안간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나라에 아주 큰 일이 터진 모양이었다. 김정일의 사망 소식이었다. 온 나라가 혼란했으며 곧 추모식이 요란하게 벌어졌다. 당시는 추운 겨울이었으므로 어떻게 추도 모임을 하나 걱정이 먼저 들었다. 김일성 사망일 때에는 한여름이라 바깥에서 추모식을 하다가 쓰러진 사람들이 많았다. 다행히 추모식은 실내에서 이루어졌다. 각 마을 회관이 애도관으로 바뀌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줄지어서 추모관에 들렀다. 큰 가정집을 빌려서 티비를 켜 놓고 전기와 불을 켜서 생방송으로 추도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가기는 싫었지만 우리 가정도 당연히 참석해야 했다. 근처에 사는 시집 식구들도 다 정해진 장소에 가서 애도를 표했다. 우는 사람도 있었고 울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나와 남편은 울지 않았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장군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울지 않았는가?"하고 물으니 남편은 "내가 한 번도 뵈 적도 없고 그 사람에게 정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 덕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정이 있어 울겠나. 울어야 한다면 그 사람 덕을 많이 본 평양 시민들이나 울겠다."고 대답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삼 북한의 우상화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물론 가족이고 부부이므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고 밖에서는 절대 입 밖에 내놓지 못할 말이었다.

다사다난한 겨울이 가고 북조선에도 봄이 왔다. 출소한 지 몇 개월 지난 시점이라 신분증을 새로 신청해서 만들었다. 교화소에 들어갈 적에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짐승 취급을 받더니



이제서야 새로 태어난 사람 마냥 신규로 인민이 되었다는 것이 기쁘지가 않고 서글프게 우스웠다. 그러나 시민권이 있어도 밤 9시가 지나면 내 마음대로 지나다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나는 가끔씩 남편의 허락을 받고 옆 동네에 사는 교도소 동기생들을 찾아가 회포를 풀었다. 우리끼리의 인사는 “그동안 잘 있었니?”가 아니라 “왜 아직 안 갔어?”였다. 우리들끼리 만나면 얘기가 잘 통했다. 사회의 불공평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 나라의 수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명확하고 솔직하게 어떤 점이 옳고 그른지를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들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 덕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속에 화병이 나지 않았던 것 같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못할 이야기들이었지만 함께 감옥 생활을 경험했던 교도소 동기생들이기에 서로 마음이 통했다.

하지만 동기생들을 찾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친구들이 있던 동네 자체가 어린아이들까지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했다. 그 근처에 광산이 있는 지역이라 유난히 순찰대도 많았다. 중국으로 도주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밤에는 암묵적으로 통행이 금지되어있었으며 단속에 걸리면 신원조회와 몸 수색부터 시작하여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었다. 내가 지나다니던 골목은 가로등도 없는 산골마을이라 밤에는 아무것도 안보였다. 하루는 집에 돌아가는 밤길에 순찰대원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다. 순찰대원은 으레 그렇듯 별 이유 없이 내 이름과 주소를 물었으나, 나는 순순히 대답해주지 않고 “내 이름이 뭔지 그게 왜 중요한가? 내가 내 마을에서 우리 집 가는데!”라며 너무 완강하게 나오자 순찰대원은 순간 당황했다. 당시에는 돌덩이를 이고 다니면서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요, 그저 같은 지역 옆 동네 친구 집에 다녀가는 것뿐인데도 이러한 일말의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 사회 자체가 너무 갑갑하게 느껴졌다. 또 한번은 집에 돌아가던 나를 붙잡고는 다짜고짜 험한 말을 해대며 몰아붙이길래 한 술 더 떠서 “왜 간첩은 못 잡고 애매한 시골 아낙네를 잡고 난리를 치냐”며 화를 냈더니 그냥 돌아갔다. 어떤 날은 친구네 집에서 자는데 숙박 검열에 걸려 분주소(파출소)에 밤새 갇혀 있었다. 그 곳은 과연 사람이 머무를 만한 공간이 못되었다. 분주소에서 나올 때 유난히 이 나라는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무쳤다.

동네 간 이동에 대한 감시의 눈은 옆동네에 있을 때만이 아니었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 뜬금없이 보위지도원이 찾아와서 옆동네에 너무 자주 다닌다며 경고를 주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조국의 푸른 대지를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밟

하게 두 발로 밟지 못하는가! 내가 밟으면 안되는 땅이라도 되는가! 나는 찢값을 다 치르고 나오지 않았는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는가!”하고 따져 물었다. 보위지도원은 나에게 딱히 옆 동네 가서 할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가정주부로서 시장도 봐오고 이것저것 어디 할 일이 적은가!”라며 대꾸했다.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언제, 어디를, 얼마나 자주 가는지 집요한 감시와 보고를 통해 뒷선에서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 북한 사회 자체가 출소 이후든 탈북 전이든 나를 비롯한 인민들을 따듯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졌다. 특히 출소한 다음에는 항상 감시가 따랐고 위압 속에 살았다. 이러한 숨막히는 통제와 감시가 또 한 번 결정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내가 고향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 즈음에 내가 나서 자란 고향 청진에 9년만에 방문하게 되었다. 정말 오랜만에 찾은 고향이기에 시간을 내어 열흘 정도 있다가 집에 돌아오니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혀 나를 찾고자 수소문하고 있었다. 남편 말을 들어보니 하루도 빠짐없이 보위직원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내가 어디를, 왜 갔는지 따졌다고 했다. 얼마나 요란을 떨면서 조사를 했는지 남편이 같은 말을 반복해도 그 말을 무시하고 의심하면서 중국에는 내가 탈북하여 중국에 간 것 아니냐며 거의 취조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옆동네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별안간 조사원이 방문하여 나의 향방에 대해 끝없이 캐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너 탈북했던 것 아니냐”라며 나의 안부를 물었고, 나는 정말 서글프고 답답한 마음뿐이었다.

시시콜콜 나의 일거일동을 다 살피는 이 사회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도 이 곳은 공장이나 기업소 하나 없는 청정 지역인데도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중국 사회에서 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잡혀 들어오니 북한이라는 나라는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는 마음도 들었다.

그래서인지 옆동네에 자전거를 타고 갈 때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딸입니다. 저를 한국 땅으로, 자유로운 세계로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내가 지금 한국 땅에 있는 것이 몇 년 전 나의 서글픈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인 줄로 굳게 믿고 감사드린다.

“어떠한 국경도, 장벽도, 문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 브라더 앤드류
(Brother Andrew, 오픈도어 설립자)

1995년, 앤드류(Andrew)라고 불리던 한 남자가 기차를 타고 철의 장막을 넘어 유럽의 공산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교회는 규모가 작고, 어려움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서구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도 없었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밀수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잊혀진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땅의 박해받고 억압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며 수십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브라더 앤드류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픈도어는 브라더 앤드류가 설립한 선교단체로서, 브라더 앤드류의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용기있는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전세계 7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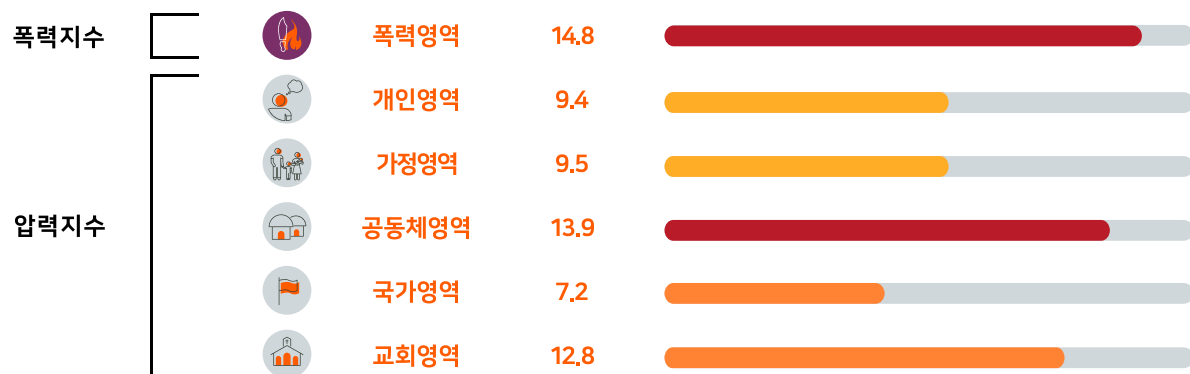
박해지역 속에서 희망을 전하는 사역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 믿음과 기도를 통한 오픈도어의 사역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33위

니제르(Niger)



폭력과 압력의 수준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의 가족들은 개종자들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동원하여 기독교를 떠나도록 압박한다. 니제르의 서부지역과 동남 지역은 지하디스트들의 활발한 무력 활동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들이 지하디스트들의 통제 아래 놓이면서, 기독교인들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이곳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식 결혼식을 올리는 것마저도 방해받고 있다. 급진적인 이슬람주의 세력들의 위협

으로 인해 이 곳 그리스도인들의 공적 예배와 모임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된다. 지하디스트들의 이데올로기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을 겪고 있고 지역 정부 기관 내에서 정당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승진 제한은 공공연한 관행이다. 교회 등록을 위한 법적 절차 역시 긴 시간의 인내가 필요하다.



국가 정보

국가 지도자: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Mohamed Bazoum)

인구: 25,006,000 명

기독교인 수: 64,700 (0.3%)

주요종교: 이슬람교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제한적 대통령제)

주 박해 요인: 이슬람의 압박, 조직적 부패와 범죄, 가족의 박해



니제르의 상황

주종교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64,700	0.3
무슬림	24,144,000	96.6
전통종교주의자	771,000	3.1
불가지론자	134,000	0.1

니제르는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독립 후, 4 번 이상의 군사 쿠데타를 경험했다. 그러나, 2011년 마하마두 이수푸(Mahmadou Issoufou)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 정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의 평화적인 집회가 보장되었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활동이 개선되었다. 현재 니제르는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최근 니제르의 외교정책과 국내정치의 '증권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니제르는 2021년 초,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와 함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지하디스트들의 다발적인 무력공격에 의해 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무력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3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사망자 수라는 점이 심각성을 더해준다. 급진적 지하디스트 세력은 니제르 정부의 세속화에 반대한다. 니제르는 북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인 모로코·알제리·튀니지 및 리비아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이슬람 마그레브(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 말리(Mali)와의 북서부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서아프리카지역 지하드 통일 운동(MUJWA: Movement for Unity and Jihad in West Africa), 나이지리

아와의 남부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보코하람(Boko Haram) 등 다양한 극단주의 이슬람주의 세력들과 충돌하고 있다.

니제르는 무슬림이 대부분인 국가이다. 인구의 약 96.5%가 이슬람 교도들이다. 니제르의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티자니아(Tijaniya: 서아프리카에 가장 널리 퍼진 이슬람 분파)나 카딜리아(Qadiriya) 수피교(Sufi) 이슬람을 따르지만, 이슬람주의 근본주의자들은 이들이 수피교(Sufism: 이슬람교의 신비주의 분파)를 떠나 살라피교(Salafism: 7세기 이전 이슬람 시대를 회복하자는 수니파의 근본주의 이슬람 분파)로 들어오도록 독려하고 있다.

니제르의 헌법은 특별히 결혼과 관련하여 여성과 소녀들에게 여전히 차별적이다. 니제르는 18세 이전에 결혼한 소녀 비율이 76%로, 세계에서 조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지역별 박해 상황 변화

주요 도시들의 외곽지역, 특히 수도 외곽지역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경험하는 주요 지역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무장세력들은 더 넓은 지역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박해를 받는 기독교 공동체들

니제르 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기독교 공동체들

니제르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기독교 공동체원들은 강제 격리와 같은 박해를 받지 않는다.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들

개신교(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등)와 카톨릭 교회 모두 이 범주에 해당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기독교인들은 니제르 내 이슬람 무장세력의 활동 증가로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교회는 나이지리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디파(Diffa, 니제르 동남부의 나이지리아 국경 인접도시) 도시에서 보코 하람(Boko Haram)과 같은 무장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대도시로 떠나는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킬라베리(Tillabéri, 니제르 서남부지역 주) 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근접한 지역의 역사적 전통이 있는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은 폭력적 공격에 대한 두려움 아래 살아가고 있다.

개종자들로 이루어진 기독교 공동체들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은 개인, 가정, 공동체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부보다 부모와 친인척들이 가족 구성원의 기독교 개종을 더 반대하기도 한다. 급진적인 이슬람 이맘(Imam)과 교사들은 평범한 이슬람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개종자들과 사역자들을 공격하고 지역 사회에서 쫓아내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들

침례교, 복음주의와 오순절 계열 등의 공동체들이 니제르 내에 존재하며 이들 모두 박해의 압박을 받는다. 이 범주의 공동체들은 전통적 기독교인들이 겪는 압박과 동일한 종류의 박해를 경험한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사회적 압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정도의 압박을 받는다.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이슬람의 압박:

니제르는 무슬림이 대다수를 이루는 국가이지만, 종교는 개인의 문제로 이해되며 국가에 의해 정치화되지 않는다. 국가는 정교 분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교분리원칙이 점점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잘라(Izara, 나이지리아 북부지역에서 시작된 급진주의 이슬람 세력)의 종교 지도자들은 니제르에서도 활동하며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타리카(Tariqa, 아랍어로 '그 길'을 의미하며 알라신에게 다가가는 수피교의 방식이라는 의미)와 같은 또 다른 이슬람 압력 단체는 마라디(Maradi, 니제르 남부 나이지리아 국경 인근지역)와 니아메이(Niamey, 니제르의 수도)와 같은 지역에서 활동한다.

이잘라와 타리카는 소수 종교인들과 자신들의 기준에 이슬람에서 벗어났다고 여겨지는 무슬림들을 탄압한다. 니제르는 대다수의 이슬람 신자들과 소수 종교인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가졌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코하람을 향한 니제르의 무력 충돌은 지역 사회 공동체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니제르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자유와 안전을 약화시켰다.

조직적 범죄와 부패:

이수푸(Issoufou)대통령은 정부의 우선적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부패와의 전쟁을 내세웠다. 정부 관료들과 친인척/가족 그리고 모든 정당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방지법이 시행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들을 위한 법안들이 세워졌고, 공무원들이 사기업들에게 뇌물을 받는 일도 공식적으로 불법행위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부패척결은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인데, 죄를 지은 사람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니제르 사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법을 어기고 부패의 관행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은 여론의 부정적 질타를 받지만 기소되지 않는다. 이러한 니제르의 상황은 기독교 인구를 포함하여 니제르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혈족에 의한 탄압

대부분의 니제르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자신들의 민족성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만약 니제르 인이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무슬림이다. 이는 이슬람과 반대되는 무엇이든지 배신으로 간주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다른 토착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된다.

남성과 여성의 박해 차이

여성

사헬(Sahel) 지역의 많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여성들은 극단주의 단체들과 다른 세력들에 의한 납치, 성폭력, 성적 학대에 취약하다. 피해자 가족들은 대체로 피해자의 결혼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두렵고 성폭행 피해자 여성이라는 낙인과 수치심이 두려워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더욱이 여성 개종자들은 가족들과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 극심한 적대를 경험한다. 이들 여성들은 강제 이혼당하거나, 자녀 양육을 거부당할 수 있으며, 무슬림 남성에게 강제 결혼과 성폭행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은 유산 상속의 권리조차도 거부당하고 있다.

- 자녀 양육권 거절
- 재산 혹은 유산 상속 거절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강제 출가/추방
- 정신적 폭력
- 성폭력

남성

남성 개종자들은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할 위험을 겪는다. 가족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거나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한다. 이 같은 박해가 주는 정신적 심리적 영향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니제르 전문가들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외롭고 긴 감금생활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은 곳으로부터 듣는다”고 전했다. 니제르 기독교 남성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사업체가 무슬림 공동체들에 의해 불

매운동을 당할 수도 있다. 대체로 남성들은 가정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는 가족 전체를 취약하게 만든다. 소년들은 무장단체들에 의한 납치와 강제 징집의 위협에 노출된다.

- 납치
- 직장/취업/사업 영역을 통한 경제적 박해
- 강제 출가/추방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연금
- 정부에 의한 감금
- 의사와 상관없는 강제 징집/군복무
- 신체적 폭력

년도	월드와치리스트 박해순위	박해지수
2022	33	68.54
2021	54	61.56
2020	50	59.74
2019	58	52.13
2018	58	45.00

니제르는 2022년도 보고에서 박해지수가 6포인트 상승하면서 WWL 2022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박해의 증가는 사헬지역(Sahel: 사하라사막 주변에 분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적 이슬람 무장세력들의 주도에 의한 압력과 폭력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폭력지수가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5가지 압력 영역의 박해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와 마찬가지로, 지하디스트들은 니제르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 박해의 사례들

- 니제르 툴라베리(Tillaberi) 지역의 판티오(Fantio) 마을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교회가 파괴되어, 5명의 사망자와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무장세력들은 교회 벽들을 파괴하고 찬송가책과 성례 의전복들을 불태웠다.
- 2021년 6월, 이슬람 무장군인들은 니제르 남서쪽 툴라베리(Tillaberi) 지역의 대부분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돌벨(Dolbel) 마을을 공격했다.

WWL 년도	사망한 기독교인 수	공격받거나 폐쇄된 교회나 기독교건물 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당한 기독교인 수	국내 이재민이 된 기독교인 수
2022	10	20	43	1000
2021	2	10	100	100

위 표는 월드와치리스트 조사기간 동안 보고된 신앙을 이유로 발생한 폭력에 대한 일부 범주만을포함한다. 보고되지 않는 사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위 숫자들은 최소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사건의 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징적 숫자인 10, 100, 1000과 같이 표기하며, 실제로 발생한 사건 혹은 피해를 당한 기독교인의 수는 훨씬 더 많다. (연도 별 조사 기간은 2022년도 자료 기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다.)

개인 영역

니제르 정부는 종교를 사적인 문제로 간주한다. 그러나, 니제르 정부의 세속적 성격에 반대하는 이잘라(Izala) 조직과 같은 급진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정부의 정교분리 원칙을 점점 더 압박하고 있다. 니제르는 이미 보코하람과 알카에다 이슬람 마그레브(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의 활동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이는 니제르 기독교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가정 영역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극심한 적대를 직면할 수 있다. 이혼을 당할 수도 있고, 자녀 양육을 거부당할 수도 있으며, 여성들의 경우 무슬림 남성과의 강제 결혼을 당하고 성폭력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자녀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독교인 부모들이 양육권을 얻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많은 개종자들이 유산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다른 기독교인들의 경우 이와 같은 형태의 박해를 경험하지 않으며 대체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공동체 영역

이슬람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지역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국경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의 통제로 인해, 기독교식 결혼식을 받

해받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공공 부문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지역 정부의 공공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며, 승진 역시 번번히 거절당한다. 니제르의 기독교 남성들은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기독교인 사업체는 무슬림 공동체들에 의해 불매운동을 당한다.

국가 영역

보코하람, IS동맹단체들과 기타 급진적 이슬람세력들의 공격은 계속해서 기독교 공동체 속에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니제르의 취약한 치안은 기독교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권력과 마찬가지로 지하디스트들 또한 기독교인을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사회 속에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만 한다. 분쟁지역을 탈출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보쑈(Bosso: 니제르 남동부지역의 나이저리아 국경의 도시), 예비(Yebbi: 나이저리아 동부지역 도시), 마이두구리(Maiduguri: 나이저리아 북동부 지역 도



시)와 올라(Yola: 나이저리아 동부에 위치한 나이저리아 내 가장 안전한 도시)의 국내이재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도시들 역시 여전히 폭력적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교회 영역

기독교인들의 예배와 모임은 무장단체들의 폭력 위협에 대비해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종종 방해를 받아왔고 교회 등록을 위한 절차는 매우 오래 걸리고 어렵다.

폭력 영역

월드와치리스트 방법론에 따르면, 폭력은 신체적 자유의 박탈, 기독교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리킨다. 이것은 또한 정신적 학대와 같은 심각한 위협을 포함한다. 아래의 표는 보고된 사례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보고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사건 수로 이해해야 한다.

니제르 연도별 폭력 박해 지수 동향	5개 영역에 대한 평균 폭력 박해 지수 (16.7/만점)
2022	10.5
2021	10.2
2020	10.1
2019	9.5
2018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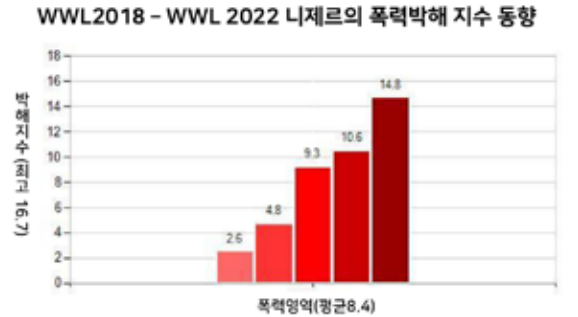
5년간 영역별 압력박해 지수 동향

2020년 이후 개인, 가정, 국가 영역의 압력 박해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공동체와 교회 영역의 폭력 박해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년간 폭력박해 지수 동향

아래 그래프는 지난 5년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박해가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5년 동안의 폭력 지수는 2018년 2.6포인트에서 2022년 14.8포인트까지 총 12.2포인트가 증가했다.



다른 소수 종교들의 상황

미국 국무부의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IRFR 2020)'에 따르면, 니제르 정부에 의한 특정 종교에 대한 박해는 없으며, "니제르 정부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모든 종교 단체들의 포교를 위한 공개적 야외 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종교 간 대화를 주관하는 단체가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한 사적영역에서 평화롭게 행해지는 포교활동이나 개인 대 개인의 종교 간 대화를 제한하는 법적 규제는 없다." 그러나, 대체로 주요 도시 중심부에 거주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바하이 교도(Bahai: 모든 종교의 근원을 동일한 하나님에서 시작되었다고 믿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시작된 종교)들의 경우, 급진주의 이슬람 세력들의 폭력적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야기하거나 지나친 이목을 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니제르의 오픈도어 선교회는...

오픈도어선교회는 니제르 지역교회들과 현지 파트너들을 통해 2011년부터 니제르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니제르에 대한 오픈도어의 비전은 니제르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대응하며, 경제적 안정의 기쁨 속에서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다가가며, 섬기는 지도자와 올바르게 훈련된 목회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 박해를 대비한 훈련
-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 문화차이를 극복하는 전도와 새신자 양육 훈련
- 섬기는 리더십을 위한 훈련
- 제자훈련 프로그램



여성을 위한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여성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여성의 진정한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전세계 박해받는 여성 기독교인들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고, 감금되거나 학대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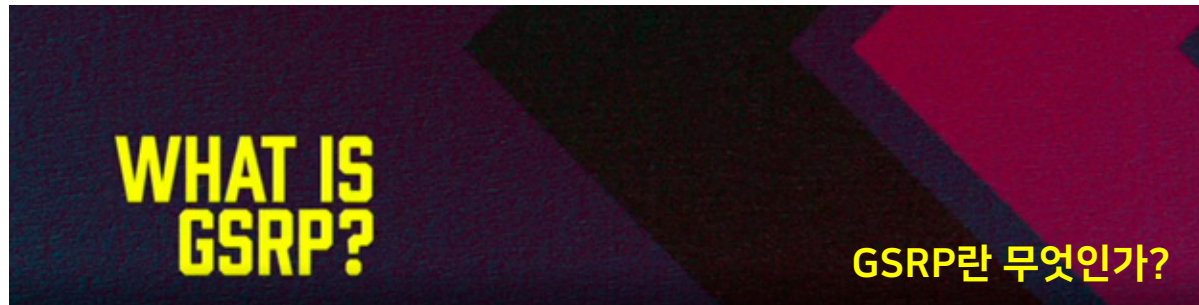
어린 소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홀로된 여성들과 싱글맘,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세요.

박해받는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여성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 땅의 여성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성들의 용기와 간증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헬렌(성별 & 종교적 박해 전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두 사람은 기독교 사역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종교적 박해 전문가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또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없는지,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의 남성과 여성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성별 & 종교적 박해 전문가):

네, 말씀하신 해결책을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려운 현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잠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독교인 남성과 여성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기독교인 남성과 여성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는지를 조명할 뿐만 아니라, '왜' 박해를 받는가에 대해서도 조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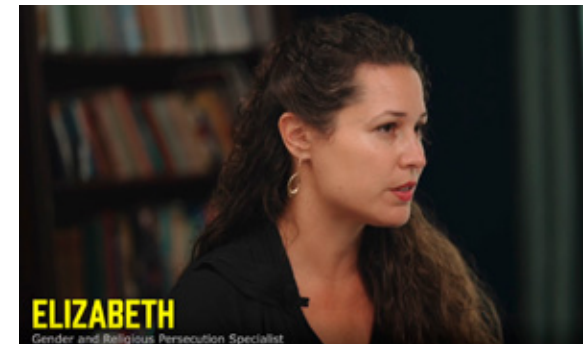
헬렌(Helene):

네, 맞습니다. 오픈도어의 '성별에 따른 종교적 박해에 관한 보고서(GSRP-Report: Gender Specific Religious Persecution)'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폭력적 행위들이 이들 남성과 여성이 속한 사회 내에서 각 성별의 취약점들과 어떻게 뻗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엘리자베스, 혹시 저희가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할 때 기억하시나요? 남성들이 어떻게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지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줬던 사람들이 가장 끔찍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생존한 여성들이었죠.

또한 저희들은 어떤 여성들과 가끔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납치를 당하고 강제 결혼을 당한 뒤, 모든 형태의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고요.



엘리자베스(Elizabeth):

네, 또 저희들이 들었던 것은, 그 곳의 남성들은 가정의 경제적 주체로서 명예로운 존재로 그 역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가치의 중요성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성들의 가치가 처녀성이나 결혼할 수 있는지 혹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모두 가치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 문화 안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이 단지 전통적인 영역(순결, 결혼, 출산, 양육과 같은 것)에 한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단지 문화의 한 부분이거나, 무언가를 수행하는데 전혀 해악이 없는 삶의 한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증명해 주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명예는 가족공동체 외부로부터 너무나 쉽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명예가 훼손되게 되면, 가정과 부부의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저희들은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관계가 깨지는 모습을 기독교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깨지게 되면 정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 성별에 따른 종교적 박해(GSRP: Gender & Specific Religious Persecution)는 국가 법체계와 사회문화적 규범과 가치체계를 이용하여 기독교 남성과 여성을 박해하고 궁극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약화시킵니다. 오픈도어의 GSRP 보고서는 2018년부터 작성되었으며, 올해가 다섯 번째 해입니다.

2022 GSRP 보고서: 성별에 따른 기독교 박해 요인의 차이

남성과 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주요 박해 요인들

기독교인 남성과 소년들이 직면하는 박해는 남성들을 죽이려는 살해시도이다. 인도의 한 전문가는 이러한 박해가 “간단한 원칙에 의한 것”이라며, “지도자인 남성을 죽여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박해자들은 교회 지도자, 집안의 가장, 경제적 공급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남성들을 박해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더 넓은 기독교 공동체에 고통을 준다. 이렇게 남성들은 사업에 방해받거나 무고한 죄로 감옥에 투옥되면서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진다. 또한 남성들은 민병대나 범죄조직에 징집되고, 납치를 당하거나 살해당하게 되면서, 남은 가족들과 공동체는 트라우마와 무력감에 시달리게 된다.

남성인 가장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어린 소년과 소년들 모두에 대한 폭력의 악순환을 의미한다. 가장 취약한 소년/소녀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위험에서 구해야 할 남성 가장들과 지도자들이 제거됨으로써 다음 세대들이 박해의 위험에 노출된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소년들이 민병대원으로 끌려가거나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살해되기도 한다. 어린 소년들이 박해로부터 살아남는다고 해도 어른들은 소년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의 고통에 시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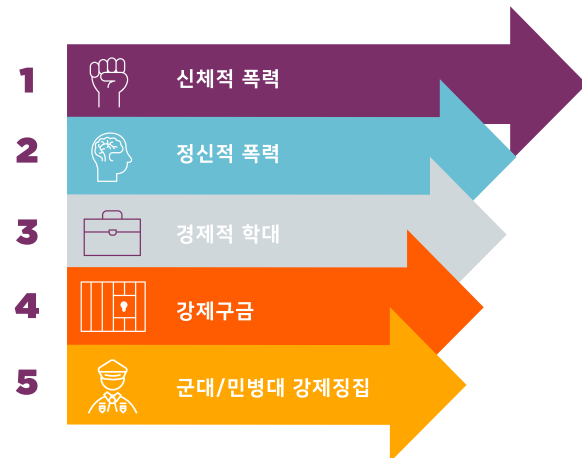
기독교인 남성에게 대한 박해는 지역에 상관없이 만연하며 대체로 폭력적이다. 특히 남성에게 대한 신체적 폭력, 강제구금, 그리고 경제적 학대 이 세가지 박해 요인은 오픈도어의 GSRP보고(성별에 따른 종교 박해에 관한 보고)가 시작된 2018년 이래로, 매년 5위권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박해 요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차별적

인 헌법, 정부권력의 압박과 사회 문화적 규범들에 의해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압박이 심해진 가운데, 남성 기독교인들은 구직, 승진 또는 창업을 하기 위해 추가적인 장애물들을 넘어서야 한다. 가족을 부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취업 기회를 찾아 이주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기독교 가정과 공동체를 더욱 분열시킨다.

개종한 남성 기독교인들은 지역 사회 공동체로부터 종종 멸시를 받는다. 남성은 종교적인 믿음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각자의 가족들을 이끌어야 할 존재로 인식된다.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남성 기독교 개종자들은 남성으로서 역할에 실패하고 가문과 문화와 공동체를 배반하게 된다. 그나마 양호한 경우는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낸다는 전제하에 가족들이 가장의 신앙을 용인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하고, 극단주의자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당하거나 살해된다.

기독교인 남성이 당하는 박해 요인 Top 5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지원 사역을 하고 있는 오픈도어 아시아 지역 현장 사역자 필립(Philip).



여성과 소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주요 박해 요인들

기독교인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박해는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여기고 성적박해를 가해 기독교 공동체에 수치심을 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해자들은 넓은 범위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벌하고 위협하는 수단이나 여성을 ‘성적 전리품’으로 간주하며 박해한다. 기독교인 여성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가치가 더 폄하된다. 기독교인 여성들은 뚜렷한 종교적 이유보다는 해당 사회 내에서 낮은 여성의 지위로 인해 쉽게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공격을 당한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전문가는 “여성들은 사회에서 전혀 그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다”며, “그래서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드러나면 여성들은 성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기독교인 소녀들이 성적 순결을 지키기 때문에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과 소녀들의 성적 순결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들의 몸은 박해자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수치심을 가하는 수단이 된다. 특히, 여성의 성적 순결이 가문의 영광과 직결되는 문화권에서는 더욱 그렇다. 성적 학대를 받고 살아남은 여성들은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박해자들의 권력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된다. 여성들의 가족들과 공동체들은 여성이 겪은 성적 학대의 흔적을 지우고자 안간힘을 쓴다. 특히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이 임신하거나 아이를 낳아 돌아오게 되면 그 고통은 더욱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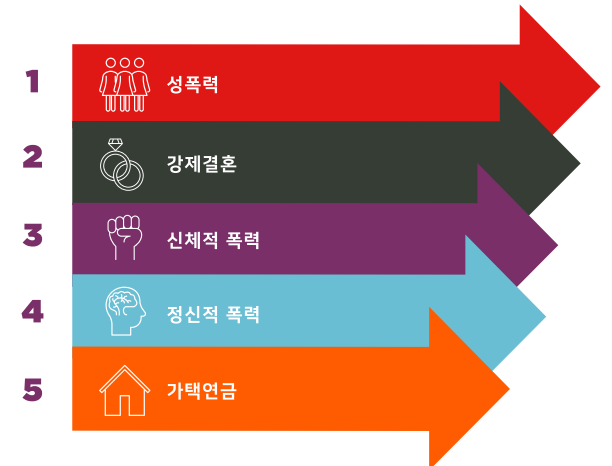
기독교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는 기독교 인구 성장을 저해하는 반면, 박해자 집단의 인구는 증가시킨다.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및 콩고민주공화국(DRC)과 같이 내전을 겪은 나라들에서는 무장세력들이 기독교인 여성들과 소녀들을 납치하여 더 많은 군인들을 양산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군인들과 강제 결혼을 시킨다.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주던 가족들로부터 가혹한 박해를 당한다. 기독교인 여성들을 다시 “통제 안으로” 되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들이 취해진다. 가족들은 여성들을 기독교 신앙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가택연금, 강제결혼,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및 심한 압박을 가한다. 기독교인 여성들은 여러 가지 학대를 수년 동안 순차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고립감을 느낀다. 기혼 여성의 경우 기독교로 개종하면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위험을 감수하게 되며 이는 결혼생활을 통해 잠재적으로 보장받았던 재정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당한 여성들은 이혼 후 자녀들에 대한 접근도 제한될 수 있다.

성폭력과 강제결혼은 지난 5년간 기독교인 여성들이 받는 박해 요인 순위에서 1, 2위를 기록했다. 월드와치리스트(WWL) 박해 국가 상위 50개국 중 88% 이상의 국가에서 성폭력과 강제결혼이 기독교인 여성에 대한 박해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성별에 따른 기독교 박해 요인 순위 보고서에는 해를 거듭해 갈수록 더욱 다양해지는 기독교 여성들에 대한 박해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세계 기독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박해를 당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독교 박해 국가들 중 많은 나라들에서 피해를 당한 여성과 소녀들의 법적 권리는 전무한 반면, 박해 가해자들에게는 면책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해자들은 기독교 여성들을 해치고, 넓게는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방법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기독교 박해 국가 내에서 기독교인 여성들이 처한 현실인 것이다.

여성 기독교인 박해 순위



북아프리카, 집에서 쫓겨난 사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사라(Sarah)와, 그녀의 부모님과 형제 사이를 닫힌 문이 가로막았다. 사라자매가 집에서 쫓겨난 것이다. 아주 어두운 늦은 밤이었다. 사라는 무서웠다. 여자 혼자 거리에 있기에는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너는 죽어도 싸!”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또다시 폭행하기 전에 한 말이다.

그녀는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움을 주실 것을 사라는 마음 깊이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집을 떠나 걷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크리스천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다. 그녀의 크리스천 친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가족들에게 연락했고, 그의 가족들은 사라를 만나서 자신들의 집에 머물도록 해주었다.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라는 대부분의 북아프리카인들처럼 무슬림으로 자랐다. 매우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녀의 아버지는 이슬람의 이맘(Imam, 기독교 목회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이자,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슬람 사원의 설교자였다. 그녀의 가족은 이슬람의 율법을 성실히 실천하는 신실한 무슬림들이다. 부모님의 엄격한 가르침 하에서 그녀는 이슬람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랐다. 27살의 젊은 여성인 사라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알라(Allah)께서 지옥에서 날 고문하고 벌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친구들과 놀러가고 싶을 때마다 부모님은 알라(Allah)께서 내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저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지만,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싶었어요.” 라고 고백한다.



사라는 자신의 청소년기가 ‘평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저는 마음 속에 아픔과 상처가 많은 아이였어요. 어떤 특정한 옷을 입거나 외출하는 것처럼 많은 일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친구가 많이 없어서 항상 외로웠고요. 저희 가족들은 제가 이슬람 종교 의식들을 행하게 하려고 저를 때리기도 했어요. 여성이 머리카락을 가리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것은 가문에 수치와 불명예를 가져오는 행위이며, 그 여성은 수치스럽고 평판이 나쁜 여성으로 여겨진다고도 했어요.”

어느 시점에 이르러 사라는 이슬람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이슬람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다. 얼마 후 16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한 교회에 들어갔다. 사라는 외국인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과 같은 무슬림 출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격했다. 예배가 끝난 후 10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책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며 이해하려 노력했다. 2년 정도 후, 사라는 페이스북에서 크리스천들을 만났고 그들은 사라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해 주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토양이 되었고 사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집에서 사라는 자신의 개종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아래 성경책을 숨겨두었는데, 라마단 기간에 그녀의 아버지가 뭔가를 찾다가 침대 밑에 있는 성경책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사라를 추궁했고, 사실을 말할 수 밖에 없었다. “제 성경책이 맞아요.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녀의 말을 들은 사라의 아버지는 거의 폭발할 듯 소리를 지르며, “너는 배교자야, 죽어 마땅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라를 때리기 시작했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그녀가 집

문을 나서자,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결혼할 때를 제외하고는 여성이 가족을 떠날 일이 없는 나라에서 홀로 집 밖으로 쫓겨난 사라는 갈 곳도 없이 그렇게 길 위에 서 있었다.

다행히 그녀는 기독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을 찾았다. 부부가 거실 소파에서 지내며, 그녀가 침실을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사라는 오픈도어의 돌봄을 받았고, 3개월 후 오픈도어가 마련한 다른 곳으로 옮겨 지내고 있다. 사라는 집을 떠나서 지내는 동안 가족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자신과 화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픈도어 후원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족들과 그녀 사이에는 굳게 닫힌 문이 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곳 북아프리카에는 사라와 같은 상황에 처한 박해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라와 같이 홀로된 많은 여성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개종한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더불어 제자 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픈도어 후원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족들과 그녀 사이에는 굳게 닫힌 문이 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곳 북아프리카에는 사라와 같은 상황에 처한 박해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라와 같이 홀로된 많은 여성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개종한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더불어 제자 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 사라자매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 사라자매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사라 자매와 같은 북아프리카의 박해 받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함께 후원해 주세요.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안전한 거처 마련과, 재정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과, 영적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을 위해 함께 후원으로 동참해 주세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또는 아래 큐알 코드를 스캔하시면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검색하여 추가하시면 더 많은 박해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교회 전화번호(010-7548-3171))를 저장하신 분들도 카카오톡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로마서 12:14-15

프라바(Praba)는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부활절 폭탄 테러로 8살된 아들 피터(Peter)를 잃었습니다(스리랑카는 2022년 월드와치리스트 박해순위 52위에 올라 있다). “가끔 하나님께 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셨는지를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날의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굳건히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02-596-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전화번호	
출금계좌번호	은행		주소		
출금액	10,000원	출금일선택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